

“내 가게 앞 잠깐 주차에 과태료 28만원이라니...”

북구청장 접견실서 ‘분신’ 소동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잇따라 단속당한 30대 자영업자가 구청장 접견실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등 소동을 피웠다. 나모(35)씨는 이날 들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조맹등 가게 앞에 영업용 1t 트럭 3대를 불법주차했다가 7번이나 적발됐다. 북구청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능한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의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1회당 4만원)는 28만원이나 됐다.

나씨는 ‘장사도 안 되는 데 너무하다’는 생각에 수차례 전화로 항의하다가, 결국 구청장을 만나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 나씨는 북구청 2층에 있는 구청장실에서 휘발유 1.8ℓ 가 담긴 페트병은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한 손에 들었다.

나씨는 구청장실 옆 접견실에서 정장 대신 나온 K 도시교통국장에 “아무리 불법주차 구역이라고는 하나 내 가게 앞에 잠깐씩 차를 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K 국장은 이에 대해 “이미 단속된 일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다. 나씨는 이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나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나씨를 공무원의 정당한 주차 단속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광주시 각 구청은 이달부터 각 1대의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차량을 투입, 모두 3천977건(동구 398, 서구 298, 남구 580, 북구 2천42, 광산구 658건)을 단속했다. 이 차량은 고성능 렌즈 3개를 장착, 시속 30km로 달리며 반경 100m 이내의 불법주차 차량을 시간당 50대씩 촬영할 수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건설사 돈 뜯은 사이비 기자 들 체포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S일보 기자 김모(50)씨와 H인터넷뉴스 기자 박모(33)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8월20일께 두산건설이 시행하는 담양~장성 간 도로건설 현장에 찾아가 “공사가 하자가 있다. 관련 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할 뉘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현장 소장 조모(49)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곳의 공사현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 ‘아토피 환자비율’ 전국 세 번째

작년 3만8,659명 치료... 西區 특히 심해

성인 아토피 환자도 해마다 급증

광주 지역의 아토피 유병률(有病率)이 16개 시·도 중 제주·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 아토피 환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2005 연별 아토피 환자 수 증감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아토피 유병률은 2005년 말 현재 2.89%였다.

이는 지난 2002년 2.52%보다 0.37%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광주 서구의 경우

경기 포천·용인·고양시 일산구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아토피 유병률이 높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3만8천659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로 5만1천원을 지출했다. 동구 주민들의 아토피 진료비는 5만8천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다섯 번째였다.

전남지역의 아토피 유병률은 2.15%로 전국에서 열두 번째 수준이었다. 이중 화순·구례군의 경우 아토피 진료비는 각각 6만원, 5만9천원으로 부산시 중구(6만3천원)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진

■ 광주·전남 아토피 유병률 추이 (단위: %)

| 구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
| 광주 | 2.52 | 2.88 | 2.94 | 2.89 |
| 전남 | 1.99 | 2.15 | 2.17 | 2.15 |
| 전국평균 | 2.45 | 2.47 | 2.49 | 2.44 |

료비가 많았다.

한편 아토피는 그동안 어린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인층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9만7천858명이었던 20대 아토피 환자는 ▲2003년 10만8천226명(9.5%) ▲2004년 11만7천222명(7.6%) ▲2005년 12만2천673(4.4%)명으로 늘었다.

40대 아토피 환자 역시 2002년 3만7천538명에서 ▲2003년 3만8천897명(3.4%) ▲2004년 4만1천455명(6.1%) ▲

◇아토피(atopy)=‘이상한’ ‘알 수 없는’을 뜻하는 그리스어 ‘atopic’이 어원으로, 심한 가려움증·피부 건조·발진·부스럼 등 증세가 나타나는 피부염, 환경 오염·의식주의 변화가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90%는 5세 이전에 발병하며, 이 중 10% 정도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광주지역 영유아의 유병률은 21%다.

2005년 4만4천300명(6.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959) 김장두



2006 충무·화랑훈련 공장 재난 긴급 구조

광주시 소방대원들이 ‘2006년 충무·화랑훈련’ 3일째인 25일 오후 광주 시 광산구 장덕동 LG 이노텍 공장서 대형 공장시설 재난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에는 소방서와 경찰, 군부대 등 23개 기관 관계자 280여 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37대가 동원돼 적(敵) 특수부대의 독가스 살포 및 건물 폭파로 인한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상황을 설정,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은 독가스 살포와 현장 지휘소 설치·적 체포 및 화학사고 처리·인명 구조 및 응급 의료활동·화재진압·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보고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성년자 고용 다방 업주 영장

광주 동부경찰은 25일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북구 T다방 업주 김모(29)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순찰 경찰 빠른 대처 대형 참사 막아

○~폭발 직전의 LP가스통 주변에 어린이 수십 명이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 대피시켜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데.

○~25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 어린이집과 화정초등학교 사이 공터에서 초등학교생 40여 명이 폐차에서 발생한 불을 구경하는 도중, 불길에 인근 원룸 외부의 가정용 LP 가스통으로 옮겨붙은 것.

○~순찰 중이던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김대중(41)·송수영(41)경사는 때마침 이를 발견, 아이들을 대피시킨 뒤 LP가스 밸브를 막고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

/서민정기자 viola@

광주·전남 이동통신 기지국 1만822곳

전자파 유해 여부 측정 회피

측정 기지국 겨우 한 곳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동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유해 여부를 측정한 기지국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전남체신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기지국 1만823개 중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측정한 기지국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민원인이 이유 없이 두통 등에 시달리는 등 이동통신 전자파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호소하며 측정을 요청한 뒤에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Wibro(휴대용 인터넷)·HSDPA(고속하향패킷 접속)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해 설치될 기지국을

감안하면 기지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지국을 선정, 표본 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지국 한 곳의 전자파 환경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20만3천원”이라며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파 측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파 피해를 우려, 기지국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전국적으로 ▲2002년 4건 ▲2003년 9건 ▲2004년 12건 ▲2005년 66건 ▲2006년 상반기 24건 등 매년 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위선 41번 ● 광주TV 광주 42번 ● 나주 40번 ● 목포 59번 ● 담양 43번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영·혼을 사로잡는 힘
매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 12시

영·혼을 사로잡는 힘
매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 12시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 6시

TV강단 매일 오후 3시 ~ 3시 30분